

10월 17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예측 어려운 롤러코스터 장세... 수급 기대 작용할까

서울, 10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제 금융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따라 이번 주에도 달러/원 환율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15-1,450원이다.

강달러 추세 속에서 달러/원 방향은 위쪽을 향하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고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똑같은 재료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예측보다는 상황 대응에 치중하다 보니 장 중 환율은 수시로 거칠게 움직이곤 한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따른 결과에 시장은 관심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16일 개막 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발언해 지정학적 우려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이번 당 대회 결과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발표되는 중국의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와 3분기 GDP 성장률 내용에 시장은 더욱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환율이 장 중 위안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위안화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할 듯하다.

또한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와 미국의 9월 산업생산,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관심이다.

미국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따라 뉴욕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달러/원은 대외 시장 전개 상황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또한 영국발 금융시장 반응도 여전히 챙겨야 할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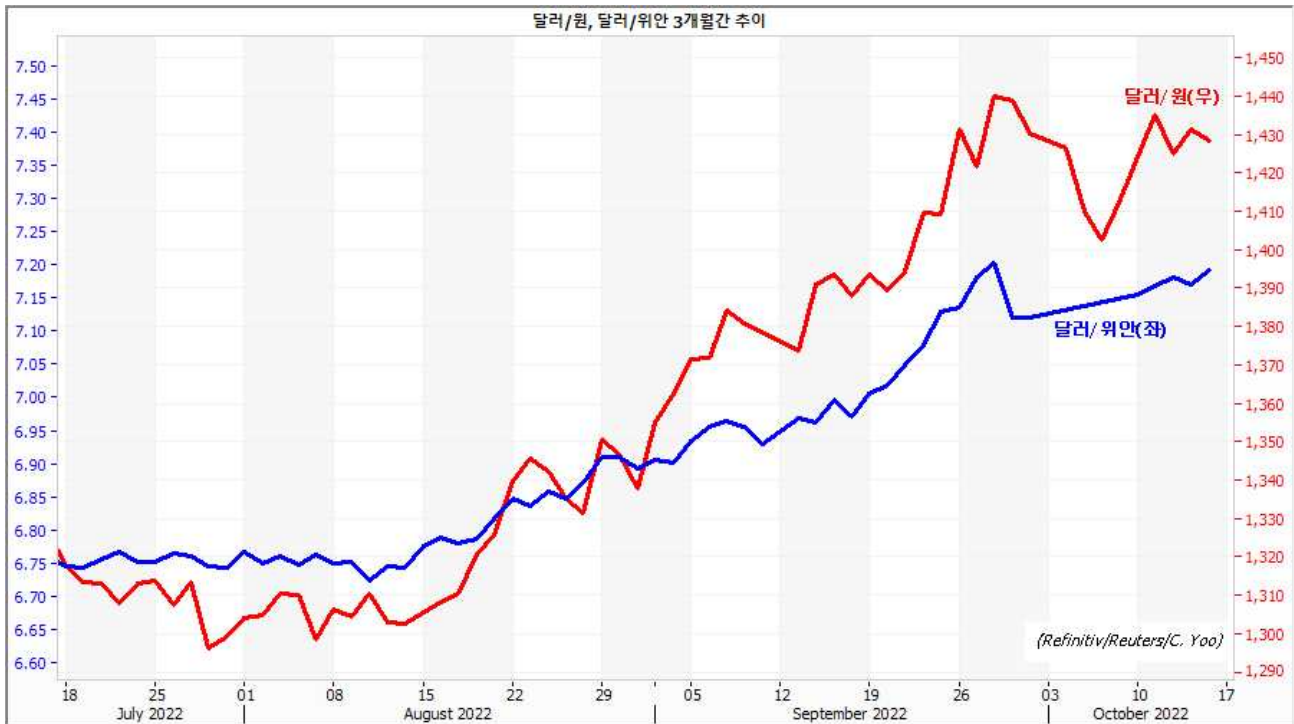
지난주 역내 수급 무게 중심의 변화로 달러/원은 한동안 상단이 눌리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동안 소극적이었던 조선사 네고 유입에 수급 풀림이 다소 완화되고, 이로 인해 수급발 시장 불안심리가 조정되는 조짐이 보였다.

이러한 수급 여건이 금주에도 지속되는 게 확인된다면 달러/원 매수 심리는 한층 완화될 수도 있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정부가 17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시장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주 후반 발표될 20일 기준 국내 수출입 현황에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

금주 역시 원화는 글로벌 시장 상황 따라 흔들리겠지만, 역내 수급 기대가 얼마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0월17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경제 규제혁신 TF (08:00)
- ⊙ 한국은행: 인공지능 언어모형을 이용한 인플레이션 어조지수 개발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 2022-38)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확대간부회의 (14:00)

10월18일(화)

- ⊙ 한국은행: 부총재 서울경제 금융전략포럼 (07:00)
- ⊙ 한국은행: 2022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2022-39) (12:00)
- ⊙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 (17:30)
- ⊙ 금융위원회: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배포시)

10월19일(수)

- ⊙ 한국은행: 향후 수출 및 경상수지 여건 평가(BOK이슈노트 2022-40) (12:00)
- ⊙ 한국은행: 2021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12:00)
- ⊙ 금융감독원: '22.8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1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16:30)

10월20일(목)

- ⊙ 기획재정부: 1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 (07:30)
- ⊙ 한국은행: 향후 재화, 서비스, 해외소비의 회복경로 점검(BOK이슈노트 2022-41) (12:00)
- ⊙ 한국은행: 최근 신용채권시장 상황 평가: 신용스프레드 확대요인을 중심으로 (BOK이슈노트 2022-42) (12:00)

10월21일(금)

- ⊙ 관세청: 10.1~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2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KDI: KDI, 2022 글로벌 포럼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정감사 (10:00)
- ⊙ 기획재정부: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1: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0월10-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1-9월		16.40%
10월17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8월		2.7%
10월17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0월	-1.00	-1.50
10월18-22일	03:00	미국	연방예산	9월		-200.00B
10월18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YY	1-9월	6.0%	5.8%
10월18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9월	4.7%	4.2%
10월18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9월	3.0%	5.4%
10월18일	11:00	중국	GDP YY	3분기	3.5%	0.4%
10월18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9월	-0.1%	-0.2%
10월18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46
10월19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9월		-1.3%
10월19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10월14일주간		214.3
10월19일	21:30	미국	건축허가	9월	1.575M	1.542M
10월19일	21:30	미국	주택착공	9월	1.500M	1.575M
10월20일	08:50	일본	수출 YY	9월		22.1%
10월20일	08:50	일본	수입 YY	9월		49.9%
10월20일	08:50	일본	무역수지	9월		-2,817.3B
10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10월		3.65%
10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10월		4.30%
10월20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8월		-19.860B
10월2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10일주간		228k
10월20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10월	-4.5	-9.9
10월20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9월	4.75M	4.80M
10월21일	08:30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CPI)	9월		3.0%
10월21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0월		-28.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18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10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9시3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워크라이즈 컨퍼런스 참석 (19일 오전 3시)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네소타 여성 경영자 행사 참석 (19일 오전 6시30분)

10월19일(수)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트래블러스 인스티튜트 타운홀 행사 참석 (20일 오전 2시)
-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20일 오전 3시)
-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제퍼슨장학재단 주최 행사 참석 (20일 오전 7시30분)

10월20일(목)

- ⊙ 포르투갈 중앙은행·영란은행 6차 연례 워크숍 (21일까지)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 바인랜드 상공회의소 연설 (21일 오전 1시)
- ⊙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경제 분야 커리어 탐색 관련 화상 행사서 개회사 (21일 오전 2시30분)
- ⊙ 리사 쿡 연준 이사, 동 행사 토론 참석 (21일 오전 2시45분)
- ⊙ 미셸 브라운 연준 이사, 2022 연준 화상 세미나서 개회사 (21일 오전 3시5분)

10월21일(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컬럼비아 그린 커뮤니티 칼리지 주최 행사서 개회사 (오후 10시10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영국 재무장관 경질, '미니예산' 추가 철회

지난달 23일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안' 발표로 영국 국채 금리 급등 등 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퀴지 콰텅 영국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영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이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미니 예산안 내용도 일부 추가적으로 철회됐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앞서 이른바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며 한 차례 유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법인세율 동결안 취소를 발표했다. 당초 중단을 약속했던 법인세율 인상(19%→25%)을 내년 4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 스트레스 테스트

영국 재정 정책 혼란 속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기금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된 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영국의 혼란에 더해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쇼크,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치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질서한 자산 리프라이싱"과 "금융시장 전염"에 대해 경고했으며, 핼코는 영국이 불안의 유일한 원천은 아닐 것이라며 대출 및 민간 신용 시장 역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기업 실적 발표 본격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강달러와 고물가의 영향이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주목된다.

S&P500 기업들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은 4.1%로,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내년 실적 전망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테슬라, 넷플릭스, 존슨앤드존슨 등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중국 공산당 당대회와 3분기 GDP 발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1주일간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당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오는 18일 발표될 중국의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와 3분기 GDP 성장률도 관심을 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3분기 성장률은 3.4%로 2분기의 0.4%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올해 성장률은 3.2%로 정부 목표치인 약 5.5%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 亞 환시 개입 여부

달러가 엔 대비 32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위안과 원화에 대해서도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외환시장에는 개입 경계감이 확산돼 있다.

엔화는 지난달 일본은행이 개입했던 수준인 145.89엔을 상향 돌파한 후 14일 뉴욕 거래에서 148엔도 넘어섰다.

한국은 지난 분기 원화 방어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매도했지만 달러/원은 여전히 13년 만의 최고치 부근이다.

중국은 14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한 위안을 방어하기 위해 국영은행들에게 달러 매도 개입을 준비시켰으며, 트레이더들은 더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한은 금통위 회의 주요기사

• 한은 금통위, 50bp 인상... 기준금리 3% 시대 열렸다

서울, 10월12일 (로이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에서 현재 2.50% 수준인 기준금리를 3%로 50bp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데 이어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 7월, 8월, 그리고 이달까지 총 여덟 차례 인상을 단행했다. 금통위가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한 번에 50bp 인상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 경로가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5%대 물가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기조(베이비 스텝)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인 가운데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달러/원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금통위도 빅 스텝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9월 물가상승률(5.6%)이 8월(5.7%)보다 하락하는 등 두 달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절대 상승률이 높고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금통위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국내외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26명 중 23명이 50bp 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것은 3명뿐이었다.

(임승규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한은 총재 “원화 급격한 절하, ‘빅스텝’ 주요인... 해외투자 전략 고민 필요”

서울, 10월12일 (로이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 스텝' 금리 인상 배경으로 급격한 원화 절하가 주요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지만, 환율 때문에 한-미 금리차에 대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올려 사상 첫 5차례 연속, 역대 2번째 '빅 스텝'인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 총재는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빅 스텝' 금리 인상 배경을 묻는 질문에 "원화가 급격히 절하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과 외화 유출 및 외화 유동성 압박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수준을 타깃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나 속도 등 여러가지를 보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관련해 금융시장 전이 위험 등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 수준을 과거와 비교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을 같이 감안해 평가해 달라고 말하며 9월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이유는 위안과 엔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재는 환율 1,100-1,200원대 시기의 해외투자 전략과 1,400원대에서의 전략이 같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이 1~2년 뒤에 정상화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하면 '상투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은 위험도가 없는 채권의 5~6%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 우리 금리 0%라 해외 투자가 합리적일 수도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1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428.5	-1.1%	-16.8%	-8.6%	유로	0.9721	-0.2%	-14.5%	-6.9%
100엔 대비	969.3	0.6%	6.6%	+1.8%	엔	148.75	-2.3%	-22.6%	-10.3%
유로 대비	1,401.5	-1.5%	-3.6%	-1.9%	위안	7.1925	-1.0%	-11.6%	+2.7%
위안 대비	200.50	-0.7%	-6.7%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29,634.83	1.2%	-18.4%	+18.7%
코스피	2,212.55	-0.9%	-25.7%	+3.6%	나스닥	10,321.39	-3.1%	-34.0%	+21.4%
코스닥	678.24	-2.9%	-34.4%	+6.8%	S&P500	3,583.07	-1.6%	-24.8%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45.20	-3.9%	-29.3%	-4.9%
국고채 3Y	4.207%	-6.9bp	240.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4.207%	-1.3bp	219.6bp	+67.6bp	미국채 2Y	4.490%	18.0bp	376.0bp	+61.0bp
국고채 10Y	4.181%	-3.3bp	193.1bp	+53.7bp	미국채 10Y	4.020%	13.0bp	251.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5.55	-8.2%	13.4%	+55.8%	한국 5Y	60.3bp	5.3bp	38.2bp	-0.7bp
금(현물)	1,642.10	-3.1%	-10.2%	-3.6%	일본 5Y	28.0bp	-0.3bp	10.3bp	+2.1bp
TR상품지수	3,496.21	1.1%	4.7%	+24.6%	중국 5Y	109.9bp	10.9bp	68.7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